

# 퍼플섬·노란섬...전 세계 주목받는 신안군 섬 마케팅

### 신안 자은도 '투자 선도지구' 선정 섬에 색·꽃 입혀 가치 업그레이드 해상풍력 등 연계 주민 소득 기여 자은도 2026년까지 138억 투자

자은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 개발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신안군의 독특한 매력적인 '섬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해내는 공직자, 주민들의 노력이 결합하면서 열악하고 가기 불편한 섬이 가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과 미래 에너지 자원과 연계하면서 주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동안 전남 관광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고급 숙박시설을 완벽해 나가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섬에 색과 꽃을 입혀 가치 제고=지난해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개최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군 퍼플섬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관광 마을에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2021 한국 관광의 별'에도 퍼플섬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퍼플섬은 반월도와 박지도 두 개의 섬을 가리킨다. 지붕부터 다리, 화장실 등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보라색으로 꾸민 반월도와 박지도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자은도 둔장마을 역시 지난 2021년 12월 노후된 건축물 60세대 지붕은 '코발트 블루' 색상과 벽체·담장은 깨끗한 '흰색'으로 색칠하기로 했다. 다도해 푸른바다의 청정함을 느끼고 천사섬 신안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선화의 섬' 선도도 수선화의 색을 딴 '노란섬'으로 조성하고 있다. 백서항이 식재하고 있는 우이도는 '백서항의 섬', 육도는 '모란의 섬'으로 각각 그려가고 있다. 섬 수국축제가 열리는 도초도에는 1004만 송이 수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 외에도 암태도 기동삼거리 동백파마머리벽화, 압해도 천사섬분재공원, 순례자의 섬 기점소악도 등도 명소로 거듭났다.

◇자은도에 국비 등 138억 2026년까지 투자=신

안군은 자은도에 2026년까지 모두 13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자은도는 신안군의 중심권역으로,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과 1004뮤지엄파크, 세계 조개박물관, 수석공원, 둔장 특화마을, 60여개의 모래해변 등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풍부한 수산물로 매년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노후되고 열악한 기반 시설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안군의 판단이다. 자은도에 대한 민간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2019년 4월 천사대교 개통 전후다.

2019년 4월 1일 신안군청에서 최일기 지오그룹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27만1479㎡ 부지에 복합리조트(600실), 호텔(150실), 펜션(150동), 마리나-레저스포츠 시설, 국제예술뮤지엄, 국제대학연구소, 오토캠핑장 등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5일 자은면 백길해수욕장 인근에서 기공식을 개최한 뒤 지난 6월 18일 '라마다 프라자 호텔 씨원 리조트'의 문을 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3~4년 내 신안 섬에 세계 톱클래스 예술인들 문화시설 오픈"

### 신안 섬 마케팅 이끄는 박우량 군수 주민 설득 자은도 숙박시설 해결 섬마케팅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



▲지난 2019년 4월 4일 천사대교가 개통한 뒤 무엇보다 좋은 숙박시설이 필요했다. 관광객들은 들어 오는데 정작 잘 곳이 없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침 토지를 매입해 놓은 업체가 투자 의향을 보여 열심히 설득했다. 산림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직접 산림청을 찾아가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도 해수욕장 등의 사용 문제로 처음에는 민감했는데 찾아가 만나니 곧 들어주셨다.

-신안군의 섬 마케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섬에 대해 편견, 즉 경제성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등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발굴해야 했다. 섬이 간직한 역사, 문화, 지형 등에 기반한 스토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 관광객들이 신안을 찾은 것으로 작용했다. 제 신념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일이다. 관광공사 임원도 신안에서 관광마케팅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

▲일마전 영국의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고퍼가 신안을 찾아 이튿날에 감탄하고 갔다. 앞으로 3~4년 안에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신안의 섬에 설치하겠다. 도시가 아닌 섬에 세계 톱클래스의 시설이 들어서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신안 주민들께 감사하다.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더 잘 살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3~4년 안에 신안의 섬에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세계 톱클래스 예술인들의 문화시설을 오픈시킬 생각이다. '1섬1뮤지엄' 정책을 통해 각각의 섬들이 매력을 발산하게 하고, 주민들은 그 섬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각오다. 자은도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산림청에 뛰어가고, 10여 차례 이상 투자업체와 면담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도, 관광단지 조성에도 다소 부정적이었던 주민들에게 찾아가 설득하며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도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은도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 윤 대통령 지지율 또 20%대...부정평가 68.5%

### KSOI 조사 긍정평가 28.9%

### 일주일만에 3.3%포인트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

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9%(매우 잘하고 있다 16.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2.8%)로 집계됐다.

전주(32.2%) 대비 3.3%포인트 하락하면서 30% 밑으로 내려갔다. 반면 부정평가는 68.5%(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9%, 매우 잘못하고 있다

59.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 늘어,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9.6%포인트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였다.

KSOI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소환조사"

### 어민 복송 직권 남용 혐의

문재인 정부의 '어민 강제 복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서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해 둔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그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잡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기초 조사를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진급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복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가족 만남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연합뉴스

##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여야 행정안전위 간사 합의

여야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전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오는 4일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